

박영숙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PARK Youngsook |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2026. 2. 25 - 4. 18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¹

박미란 | 아라리오갤러리 팀장

박영숙(1941-2025)은 일찍이 카메라를 든 여자였다. 그 사실이 카메라 앞에 선 여성들로 하여금 렌즈 너머를 당당히 응시하도록, 그리하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힘을 갖도록 고무시켰다. 사진의 역사 속에서 대상화된 여성은 이제 자기 서사의 저자이자 발화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시선의 권력은 전복되고, 신체는 동시대적 담론의 장으로 변모한다. 이성과 도덕이라는 허울로 위장한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박영숙의 여자들은 차라리 '미친년'이 되기를 자처한다. 이들은 주저 없이 웃고름을 풀어 헤치고 내면의 '마녀'를 일깨운다. 보라, 저 여자를—미친 듯이 개화하는 영혼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전시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는 한국 현대사진과 페미니즘 미술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박영숙의 별세 이후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본 전시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나아온 경로를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오늘의 시공간에 부활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사회적 억압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재탄생한 여자들이 전시장에 소환된다. 출품작의 시기 범주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40여 년의 흐름을 폭넓게 아우른다. 전시의 동선은 '미친년'과 '마녀'의 전성기를 방문하는 한편, 그들의 원형을 좇아 보다 오래된 흑백의 풍경을 탐색하는 여정으로 전개된다.

1F 품을 것이 없어 공단 베개를 끌어안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여자, 한복 치마 끈을 풀어 헤치자 옥죄던 가슴이 열려 신나게 웃어대는 여자, 살림과 육아의 난장 속에서 기어코 외모를 단장한 채 정면을 쏘아보는 여자. 세상은 그런 여자들 앞에 '미친년들'이라는 멸칭을 쉽게도 내어준다. 박영숙의 대표작인 '미친년 프로젝트'(1999-2019)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관습에 의하여 인내와 침묵을 강요당해 온 역사 속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세기말 발표한 <미친년들>(1999) 이후 이십여 년간 다양한 연작으로 변주된 해당 프로젝트는 "자신을 미치게 하는 고통이 무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른 채,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의 고통들을 겪어 내며 참고 또 참았던," 그렇기에 "미친년이 되고 처녀 귀신이 될 수밖에"² 없었던 과거의 여자들을 위하여 오늘의 여자들이 대신 수행하는 몸짓이자 기록이다.

한편, '미친년 프로젝트'의 등장을 예비하는 포토몽타주 연작 <육체 그리고 성>(1998)은 중년 여성의 나체를 전면으로 선보인다. 얼굴이 있을 자리가 사물의 형상으로 도치된 채, 벗어든 춤사위의 한 대목과 같이 단아한 자세를 취한 모습이다. 머리를 대신하는 사물들—가사 노동의 상징이자 진취적 생동감을 표현하는 다리미, 수분기 머금은 생명력 혹은 욕망의 기호로 읽히는 사과, 생명의 잉태를 은유하는 동시에 한시적 찬란함을 자랑하는 꽃송이들—은 여성의 양가적 속성을 지시하는 메타포이다. 선명한 색채를 드러내는 사물들이 기호화된 여성성을 암시한다면, 흑백의 얼굴 없는 신체는 그 이면에 실존하는 여자의 사실주의적 초상이다. 출산의 흥터와 늘어진 살을 고스란히 드러낸 여자의 몸은 성적 욕망에 앞서 인간적 유대감에 호소한다.

B1F 박영숙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 페미니스트 및 다각도의 성적 지향을 지닌 소수자들과 교류하면서 '미친년 프로젝트'의 외연을 확장해 나아갔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자 자신에게조차 왜곡되거나 은폐된 성의 관념에 관하여 말하는 <상실된 성>(2001) 연작과 반복되는 일상의 가사 노동을 행하는 여자들이 '미친년의 시공간'을 떠올리고 상념에 젖어드는 순간을 포착한 <간헐적 몸, 정처 없는 마음>(2002) 연작은 주위 여성들의 경험을 작품의 서사에 녹여낸 결과물이다. 한편 <내 안의 마녀>(2005) 연작은 주제적인 시선과 지혜, 창의력을 지닌 여자의 초상을 통하여 현대적 마녀의 재림을 묘사한 액자식 구성의 화면을 선보인다. 타원형의 중심부와 식물 도상이 장식된 배경부가 대비를 이루며 극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³

꽃이 흐드러진 풍경 한가운데 놓인 여성 신체를 포착한 <꽃이 그녀를 흔들다>(2005) 연작은 시인 김혜순이 박영숙에게 선물한 동명의 시와 공명하는 작품이다. 해당 시는 꽃을 피우는 땅의 기운을 여자의 몸에서 피어나는 광기에 빚대어 표현한다. 시구에 화답하듯, 박영숙의 사진은 꽃과 여자 양측에 공통적으로 덧씌워진 연약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전복시키기를 시도한다. 꽃의 군집이 이루어 내는 시각적 강렬함을 드러내고, 여자의 몸짓과 시선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서다. 화면 속 꽃과 여자는 더 이상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난 광기를 터뜨려 스스로 해방된 발화의 주체이다.

3F 박영숙의 1960-80년대 사진들은 훗날 '미친년'과 '마녀'의 이미지로 정립된 여자의 원형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흑백 사진 여섯 장을 나란히 이어붙인 포토콜라주 작품 <마녀>(1988)의 좌측 하단부에는 다음의 손글씨가 적혀 있다. "중세, '마녀사냥'에 충격받아 페미니스트 되다." 글귀가 증언하듯 박영숙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것은 마녀사냥의 역사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대면한 순간부터였다. 김혜순의 시 「그곳 2—마녀 화형식」이 그러한 영감의 동인이 됐다. <마녀>의 화면 속 두건을 둘러싼 여자의 모습은 초기 연작 <장면>(1963-67)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해당 연작은 이십 대의 박영숙이 감각적이고도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면면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1 본 전시의 제목은 시인 김혜순이 작가에게 선물한 시 「꽃이 그녀를 흔들다」의 시구로부터 차용했다. 시구에 등장하는 '저 여자'는 박영숙 본인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속 모든 여성을 지시한다.

2 박영숙, 「미친년 프로젝트에 대하여」(1999), 박영숙·김영옥 편저, 『미친년 프로젝트』(서울: 상경커뮤니케이션, 2009), pp. 65-67.

3 배경부의 식물 도상 디자인에 윤석남이 참여했다.

<장미>(1988)는 장미꽃과 만삭의 몸을 촬영한 흑백 사진 다섯 장을 세로로 나열한 포토콜라주로, 강은교의 시 「이름 모르는 꽃」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반전 기법을 활용하여 같은 필름을 다른 명도로 반복 인화한 뒤, 하나의 화면 위에 순차 배치한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연상시킨다. 제 몸에 가시를 품은 장미는 망울을 터뜨려 개화한 강인함의 상징이자 새로운 씨앗을 예비하는 생명력의 응집체라는 점에서 여성의 자궁과 동일시된다. <장미>에 나타난 만삭의 몸은 훗날 영상 작품인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1994)에 재차 등장한다.⁴ 한영애의 구음(口音)이 서사의 흐름에 동행하는 가운데, 영상은 거대한 자연의 풍경과 만삭의 여성 신체, 아이의 탄생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이내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도시의 일상을 긴박하게 지난 화면은 말미에 이르러 온화한 산의 능선과 자연에 치성을 올리는 노모들의 모습으로 끝맺는다. 자연에서 출발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미상관식 서사를 통하여, 해당 작품은 자궁을 경유하는 탄생의 사건을 대자연의 순환 원리에 결속시키는 시각적 제의를 구현한다.

박영숙은 우리의 사회가 존중하지 않은 여자들을 연민했다. 특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강요하는 관습의 부당함에 분노했다.⁵ 그는 시대의 과오 아래 파묻힌 서사를 발굴하여 세상에 꺼내어 놓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⁶ 이에 사진의 언어를 도구 삼아 그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로지르는 시간 축 위에 박제하였다. 여자의 주체성을 불온한 광기로 치부할 것이라면, 스스로 기꺼이 ‘미친년’이 되고 ‘마녀’가 되겠다는 선언의 일환으로서다. 보라, 박영숙의 여자들이 노래하고 춤춘다. 저 여자의 광기가 오늘의 찬란한 꽃으로 핀다.

-
- 4 동료 작가 윤석남과 가수 한영애, 목사 김영과 함께 진행한 동명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되어, 김홍희가 기획한 전시 《여성, 그 다음과 힘》(한국미술관, 1994)에 선보인 작품이다. 아날로그 슬라이드 필름 영사 방식으로 제작된 해당 영상을 디지털 판본으로 복원한 결과물이 본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 5 가부장적 정상성에서 배제된 존재들에 주목하는 박영숙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여성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전반을 포용한다.
- 6 박영숙, 앞 글, p. 67.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¹

PARK Miran | Deputy Director at ARARIO GALLERY

PARK Youngsook (1941–2025) was, from the very beginning, a woman with a camera. This fact encouraged women standing before her lens to gaze back boldly, empowering them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images. Women, once objectified in the history of photography, are reborn as the architects of their own narratives and the subjects of their own voices. The power of the gaze is subverted, and the body is transformed into an agora of contemporary discourse. In the face of an androcentric society disguised under the veneer of reason and morality, PARK’s women choose instead to become the “Mad Women.” Without hesitation, they loosen their Hanbok and awaken the “Witch” within. Now, look at that woman—a soul blooming in madness.

The exhibition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at ARARIO GALLERY SEOUL is the first solo exhibition of PARK following her passing, a figure who left an indelible mark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photography and feminist art.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to retrace the trajectory of the artist’s thematic consciousness and to resurrect that spirit within today’s space and time. Women who have broken free from social oppression to reinvent themselves are summoned to the exhibition space. The works span a broad period of over forty years, from 1963 to 2005. The exhibition layout is envisioned as a journey that visits the heyday of the “Mad Woman” and the “Witch,” while also tracing their archetypes back through earlier black-and-white landscapes.

1F A woman left with nothing to hold, clutching a satin pillow while staring blankly into space; a woman laughing exultantly as she unties her Hanbok strings to release her constricted chest; a woman glaring straight ahead, meticulously made up amidst the chaos of housework and childcare. To such women, the world readily hurls the slur “Mad Women.” PARK’s representative body of work, *Mad Women Project* (1999–2019), began for all women throughout history who were forced into patience and silence by male-oriented social customs. Evolving through various series over twenty years since the release of *Mad Women* (1999)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is project serves as both a performance and a record, carried out by the women of today on behalf of the women of the past—those who were unaware that the pain “lay deep in their unconsciousness; it was enough for one to lose their mind completely, yet they endured these unbearable situations endlessly.” Thus, these women had no choice but to become “mad; they became ghosts.”²

-
- 1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is borrowed from a line in the poem “A Flower Shakes Her,” gifted to the artist by the poet KIM Hyesoon. “That woman” in the poem refers to all women throughout history—including PARK herself—encompass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2 PARK Youngsook, “Statement for Mad Women Project” (1999), eds. PARK Youngsook and KIM Youngok, trans. CHOI Inyoung, in *Mad Women Project* (Seoul: Sangkyung Communication, 2009), p. 64.

Meanwhile, the photomontage series *Body and Sexuality* (1998), which foreshadows the *Mad Women Project*, brings the naked bodies of middle-aged women to the fore. In these works, the women's faces are replaced by objects, while their bodies maintain graceful poses, as if captured in a still moment of a dance. The objects substituted for heads—the iron, a symbol of domestic labor and progressive energy; the apple, an allegory of moist vitality or desire; and blossoms, embodying the conception of life and fleeting brilliance—all function as metaphors for the ambivalent nature of women. While the vibrantly colored objects suggest a coded femininity, the black-and-white, faceless bodies represent realistic portraits of women existing behind them. Revealing the scars of childbirth and sagging flesh, these bodies appeal for human solidarity and existential recognition rather than sexual desire.

B1F PARK expanded the horizons of the *Mad Women Project* by engaging with feminists from various fields and minorities of diverse sexual orientations. The series *Sexuality is Lost for Women* (2001), which addresses concepts of sexuality that were distorted or concealed even from women themselves within a conservative society, and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2002), which captures moments when women performing repetitive domestic labor drift into the “Space and Time of Mad Women,” are the results of weaving the experiences of women around her into the narrative. Meanwhile, the series *Witch Within Me* (2005) depicts the advent of a contemporary witch through portraits of women possessing an independent gaze, wisdom, and creativity. These works present a frame-within-a-frame composition, where an oval center contrasts with a background decorated with botanical iconography, creating a dramatic atmosphere.³

The series *A Flower Shakes Her* (2005), capturing the female body in the midst of a landscape in full bloom, resonates with the poem of the same title gifted to PARK by the poet KIM Hyesoon. The poem likens the energy of the earth that brings flowers into bloom to the madness blossoming from a woman's body. As if in response to these lines, PARK's photography attempts to subvert the stereotypes of “fragility” and “beauty” commonly imposed on both flowers and women. This is achieved by highlighting the visual intensity created by clusters of flowers and focusing intently on the woman's gestures and gaze. Within the frame, the flowers and the woman are no longer objects of contemplation; instead, they become subjects of their own speech, liberated by erupting the madness that has grown within.

3F PARK's photograph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provide clues to her female archetypes that would later be established as the “Mad Woman” and the “Witch.” In the lower-left corner of the photo collage *Witch* (1988), which consists of six black-and-white photographs joined side by side, there is a handwritten note: “Became a feminist after being shocked by the medieval ‘witch hunt’.” As evidenced by the quote, PARK's self-identification as a feminist began at the moment she confronted the history of witch hunt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t was KIM's poem “That Place 2—Burning of a Witch” that provided the impetus for this realization. The hooded woman in *Witch* can also be found in her earlier series, *Scene* (1963–67). This series honestly captures various facets of the world, seen through the sensuous and unique perspective of PARK in her twenties.

Rose (1988) is a photo collage composed of five black-and-white photographs of a rose and a full-term pregnant body arranged vertically—a reinterpretation of KANG Unkyo's poem, “A Flower Whose Name I Do Not Know.” By employing a reversal printing technique to process the same negative repeatedly with varying luminosities, the sequential placement on a single surface suggests a sense of temporal flow. A rose bearing thorns upon itself parallels the woman's womb; it stands as a testament to strength unleashed through blooming and an embodiment of life force awaiting the next generation of seeds. The pregnant body shown in *Rose* reappears later in the video work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⁴ Accompanied by the wordless vocals of HAN Young Ae, the video sequentially displays vast natural landscapes, the pregnant female body, and the birth of a child. After a tense sequence capturing the frantic pace of daily city life, the video concludes with the gentle ridges of mountains and elderly mothers offering prayers to nature. Through a circular narrative that begins and ends with nature, the work embodies a visual ritual that binds the event of birth through the womb to the cyclical principles of Mother Earth.

PARK felt deep compassion for the women whom our society failed to respect. She was incensed by the injustice of customs that imposed prescrib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solely because one was born with a specific body.⁵ She believed that a feminist's role is to disclose and bring to light the deeply buried narratives erased under the disregard of the age.⁶ Accordingly, using the language of photography as her tool, she preserved these stories upon a timeline that travers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was part of a declaration: if a woman's agency is to be dismissed as subversive madness, she would willingly become a “Mad Woman” or a “Witch” herself. Look, her women sing and dance. The madness of those women blossoms into the brilliant flowers of today.

3 The botanical iconography in the background was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YUN Suk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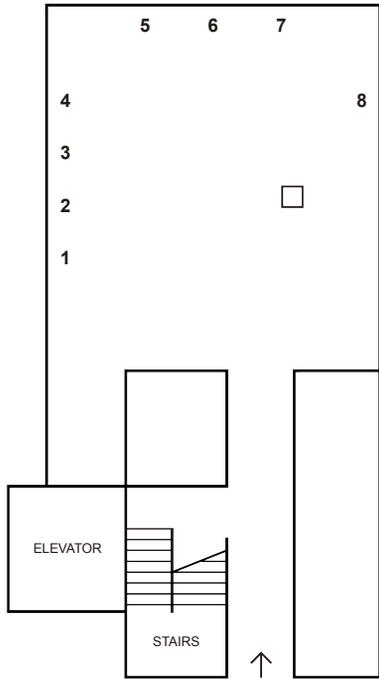
4 This video work was produced as part of a project under the same title in collaboration with fellow artist YUN Suknam, singer HAN Young Ae, and Pastor KIM Young. It was first presented in the exhibition *Woman, the Difference and the Power* (Hankook Art Museum, 1994), curated by KIM Hong Hee.

The digital restoration of the original video, which was initially created using analog slide film projection, is being unveil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5 PARK's feminism, which focuses on those excluded from patriarchal normalcy, embraces not only biological women but also sexual minorities at l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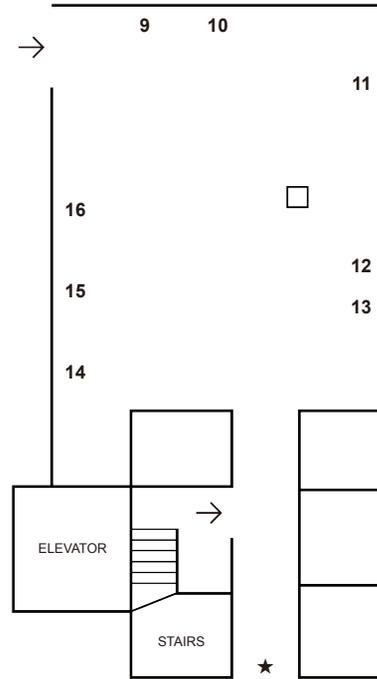
6 PARK, *op. cit.*, p. 66.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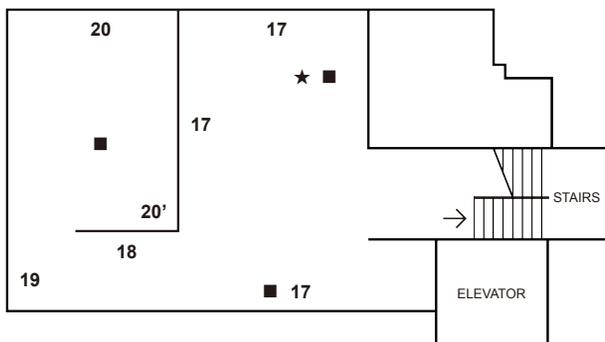
- 1 <육체 그리고 성 #2> *Body and Sexuality #2*, 1998, C-print, 175 x 110 cm
- 2 <육체 그리고 성 #1> *Body and Sexuality #1*, 1998, C-print, 175 x 110 cm
- 3 <육체 그리고 성 #3> *Body and Sexuality #3*, 1998, C-print, 175 x 110 cm
- 4 <육체 그리고 성 #7> *Body and Sexuality #7*, 1998, C-print, 175 x 110 cm
- 5 <미친년들 #1> *Mad Women #1*, 1999, C-print, 150 x 120 cm
- 6 <미친년들 #5> *Mad Women #5*, 1999, Archival pigment print, 150 x 120 cm
- 7 <미친년들 #2> *Mad Women #2*, 1999, C-print, 150 x 120 cm
- 8 <미친년들 #7> *Mad Women #7*, 1999, C-print, 150 x 120 cm

B1F



- 9 <갇힌 몸, 정처 없는 마음 #5>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5*, 2002, C-print, 120 x 120 cm
- 10 <갇힌 몸, 정처 없는 마음 #1> *Imprisoned Body, Wandering Spirit #1*, 2002, C-print, 120 x 120 cm
- 11 <내 안의 마녀 #5> *Witch Within Me #5*, 2005, C-print, 170 x 127 cm
- 12 <상실된 성 #1> *Sexuality is Lost for Women #1*, 2001, C-print, 150 x 107 cm
- 13 <상실된 성 #2> *Sexuality is Lost for Women #2*, 2001, C-print, 150 x 107 cm
- 14 <꽃이 그녀를 흔들다 #14> *A Flower Shakes Her #14*, 2005, C-print, 120 x 120 cm
- 15 <꽃이 그녀를 흔들다 #1> *A Flower Shakes Her #1*, 2005, C-print, 120 x 120 cm
- 16 <꽃이 그녀를 흔들다 #5> *A Flower Shakes Her #5*, 2005, C-print, 120 x 120 cm
- ★ <미친년 프로젝트: 꽃이 그녀를 흔들다> 기록 영상 Archival footage of *Mad Women Project: A Flower Shakes Her*, 2005,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2'06"

3F



- 17 <장면> 연작 *Series of Scene*, 1963-67, Gelatin silver print, 40.6 x 50.8 cm (23 pcs.)
- 18 <마녀> *Witch*, 1988, Gelatin silver print, 26.5 x 217.2 cm
- 19 <장미> *Rose*, 1988, Gelatin silver print, 133 x 25.5 cm
- 20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2026),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07'30"
- 20' <자궁의 노래: 이제 크신 어머니 자고 깨니>를 위한 한영애의 구음(口音) 노트
HAN Young Ae's Wordless Vocal Script for *Song of the Uterus: As the Great Mother Sleeps and Rises*, 1994
- ★ 박영숙 아카이브 자료 Archival materials on PARK Youngsook
- 이정배의 가구 Furnitures by LEE Jeongbae

땅이 미치지 않고 어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If earth is not mad,
How can it bloom a flower?

여자의 몸에서 올라오는 광기는
여자의 몸에서 올라오는 꽃과 같다
광기가 꽃을 피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산
땅 속에 억눌린 채 숨어 있던 영혼의 열림
바로 개화다

The madness rising from woman's body
Is a flower rising from her body
Madness blooms a flower
This is the most beautiful birth
Opening of a soul
Hidden, oppressed under the earth
That is the opening of a flower

여자가 미치지 않고 어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겠는가
보라, 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춘다
땅이 미쳐 저 꽃이 핀다

If a woman is not mad,
How can she sing and dance
Look,
That woman sings and dances
That flower is blooming
From the madness of the earth

- 김혜순, 「꽃이 그녀를 흔들다」

- KIM Hyesoon, "A Flower Shakes Her"

기획	아라리오갤러리	Organized by	ARARIO GALLERY
총괄 디렉터	강소정	Executive Director	KANG Sojung
팀장	박미란	Deputy Director	PARK Miran
글	박미란	Text	PARK Miran
번역	아라리오갤러리	Translation	ARARIO GALLERY
디자인	박성휘	Design	PARK Seonghwi
설치	피아	Installation	PIA